

One-way의 끝에서

김용진*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기독교재단의 ‘미션’ 스쿨이어서, 불교는 윤회사상의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반면에 기독교는 천지창조에서 세상의 끝으로 향해가는 선형적인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졌다는 것을 청소년 때부터 듣고 자랐다. 중2 때였는지 고1 때였는지, “인생은 one-way”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one-way로 된 도로를 본 적도 없고 그 개념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 교목 선생님도 고속도로를 보기로 들면서, 한번 도로에 잘못 진입하면 다음 인터체인지가 나올 때까지 빠져 나가거나 되돌아올 수 없는 이치를 말씀하셨다. 설교의 요지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방향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때문에 (쉽게) 유턴을 할 수 없을 뿐,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 다시 반대쪽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진짜 one-way는 아니다.

진짜 one-way는 지금 내 앞에 있고 그 끝은 아주 조금 남아 있다. 《인문시보》에 이 원고를 제출하고 나면, 나는 이제 3개월 후에 송실대의 교수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1990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2020년으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또 다른 one-way로 들어서야 하니, 기독교적 선형의 역사관이 나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기에 성경적 역사관을 배울 때에는 이게 무슨 희한한 소리인가 했었는데 50대에 들어서

* 송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는 인생에 반복적인 일이 거의 없다는 관찰과 경험들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적에 동네의 다른 아이들 부모들과 즐거운 모임을 가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모임을 자주 갖자는 덕담을 주고받고 나서 실제로 두 번째 만남 경우는 거의 없다. 인생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경험은 나의 축구 관련 경험이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대표 축구선수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축구를 즐기면서 살아왔고 현재 숭실대학교 교직원 축구팀의 ‘열심당원’이다. 50년이 넘게 줄곧 축구팀의 회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축구에 관한 반복적 경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즘 사용하는 축구공은, 내가 11세에 처음으로 가죽 냄새를 맡으며 황홀해하던, 고무 튜브와 가죽 외피가 따로 있어서 튜브에 바람을 다 넣고 난 뒤에 쇠꼬챙이로 줄을 감아대던, 4호 사이즈의 그 공이 아니다. 운동장도, 먼지 폴폴 날리고 가끔 꼬막 껍데기가 땅속에 박혀 있던 그런 운동장이 아니라, 4계절 밤낮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인조 잔디 운동장이 다. 내가 처음 교직원팀에 입회할 때 나를 맞아주던 회원은 이제 딱 한 명 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변화한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은 나의 몸이다. 룡패스가 특기이던 옛날은 가고 슛패스도 맘대로 잘 되지 않는다. 축구가 ‘특기’에서 ‘취미’로 바뀌더니 지금은 ‘관심사’가 되었다. 전에는 축구를 ‘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축구를 계속 ‘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이다.

아, 그런데 정말 안 변한 것도 있다. 아마도 좋은 것은 변하고 나쁜 것은 안 변하는 모양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23세에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군복무와 유학생생활을 제외하면 모두 34년의 교직 생활을 하였다. 교사 첫해부터 교수 퇴직을 앞둔 지금까지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다. (더 큰 약점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비밀로 남겨 두고 ... ^^) 학생들을 얼굴이 아니라 이름으로 아는 것이 좋은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교직을 떠나게 되어서 나의 (거의) 모든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름과 함께 사랑해 주시는 모든 동료 교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나에게 변하지 않은 것은 “요즘 학생들은 좀 어때요?”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학생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 출입문에서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나요.” 내 눈에는 가장 젊은 세대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의 바르다.

글을 쓰다 보니 자기모순적인 언급이 대인지퇴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느낌이다. 학술논문이 아니니까, 붓가는 대로 쓴 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 학기 들어서면서, 옆방에 계시던 사학과 권영국 선생님이 한 학기 먼저 퇴직함에 따라, 내가 조만식기념관의 최고령자 중 하나가 된 것을 알았을 때 그 기분이 참 묘했다. 전지구적인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이 조금씩 엇나가 있는 와중에 학교가 이 정도로 잘 버티면서 교육을 수행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어려울 때 혼자 먼저 떠나는 것이 조금 미안하다. 어쨌든 이제 이 길을 벗어나면 되도록 다른 종류의 새 길로 다니려고 한다. 그동안 나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리며 글을 맺는다.